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농림수산분야 ODA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면담 조사, 현지 전문가 협의회 개최

1. 출장목적

- 총리실 발주 용역과제인 “농림수산 분야 ODA 평가” 계획에 따른 현지 조사 실시.
 - * ODA를 총괄 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2012년도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소위원회가 농림수산 분야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당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 기본과제인 “국제사회 개발협력 전략 분석”과 연계하여 필리핀 주재 국제기구 현지 전문가 협의회 개최(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국제개발처, 일본 JICA, 필리핀 농업부 등)
 - * 협의회 일시: 2012. 8. 31, 09:40 ~ 17:00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이대섭 연구위원	필리핀(마닐라, Pangisana, Neuva Ecija),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룬핑, 보고르 텐조)	2012. 8. 28 ~ 9.7 (9박 11일)
허 장 연구위원		

3. 일정표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8.28 (화)	인 천 (19:20)	마닐라 (22:15)	KE 623	출 국
2	8.29 (수)	체	재	- 수출입은행 - 필리핀 농업부 - 이동 및 현장조사(마닐라 → Neuva Ecija)	- 방문목적 및 일정 소개 - 관계자 면담 조사 - 농진청 KOPIA 및 KOICA 낙농축산 사업지구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3	8.30 (목)	체	재	- 이동(Neuva Ecija → Pangasinan) - RPC 현장조사 - 이동(Pangasinan→마닐라)	KOICA RPC 사업지구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및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 도출
4	8.31 (금)	체	재	현지협의회 개최	- 자문의견 및 추진정책, 체계, 추진방식관련 자료 수집 - 세미나 주제: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griculture and rural sector: strategies, procedure, monitoring and evaluation".
5	9.1 (토)	체	재	자료 정리 및 자체 회의	현지조사 및 협의회 정리
6	9.2 (일)	마닐라 (07:20)	자카르타 (12:45)	PR 504	이 동
7	9.3 (월)	체	재	- 인니 산림부 - 한국대사관 임무관면담 - 인니 BAPPENAS(농업담당 국장) - KOICA 인니 사무소	- 방문목적 및 일정 소개 - 관계자 면담 조사
8	9.4 (화)	체	재	- 이동(자카르타 → 롬뽕) -양묘사업 지구 - 이동(롬뽕 → 보고르→ 자카르타) - 전작물 사업 지구	사업지구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및 개선 방안을 위한 시사점 도출
9	9.5 (수)	체	재	- 인니 농업부 - 한-인니 산림협력 센터 - 인니 BAPPENAS(산림담당 국장)	관계자 면담 조사
10/11	9.6/9.7 (목/금)	자카르타 (목, 22:05)	인천 (금, 07:05)	수출입 은행(EDCF) KE 628	귀국

4. 주요 내용

4.1 필리핀

1) 핵심 요지

필리핀 농업부문에 지원된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은 필리핀 농업부문 중장기국가개발전략의 목표인 식량안보 강화 및 식량 자급률 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수원국의 핵심 개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성과 관리, 우리나라 시행기관, 국제기구 및 공여국 등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원조조화성 고려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사후관리 및 연계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제고와 공여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한 원조 조화성 강화를 위해 하기 측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제고)** 농업부문의 특성상 가치사슬(투입재, 생산성 제고, 수확후 관리, 유통 및 판매망 구축 등)의 세부분야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식의 사업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대 및 성과 제고
 - 농업부문의 가치사슬 중 한 분야에 중점을 두는 사업(예: 수확후관리 시설 지원 등)은 지속가능성이 저하(예: 판매망 확보 미흡)되는 문제로 성과제고가 어려움.
- **(원조 조화성 강화)** 정기적인 공여기관 및 기구와의 정기협의회(Thematic Working Group Meeting) 추진을 통한 정보공유, 유사 사업추진 방지, 연계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대
 - 필리핀 주재 KOICA, USAID, UNDP, JICA, WB, ADB, FAO, 필리핀 농업부 등을 포함한 정례회를 구축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
- **(원조 역량 강화)** 필리핀 상주 원조 시행기관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 필리핀 상주 우리나라 원조 시행기관의 농업부문 전문가 파견을 통한 원조 효율성 제고.

2) 방문 기관별 면담 내용

가. 농진청 KOPIA 센터

□ 일시 및 장소: 8.29, 16:00-18:00, 회의실)

□ 참석자: 이정택 KOPIA 필리핀 소장, PHILRICE Caesar Tado 국장 및 관계자

○ '10년 설립된 필리핀 KOPIA 센터의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

- KOPIA 센터는 개도국의 맞춤형 선진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필리핀의 주곡인 쌀을 주요 작목으로 선정하여 필리핀측 PhilRice(농업부 쌀기술연구 기관)와 공동으로 병충해 저항 종자개발 및 우리나라 종자의 필리핀 적용 실험을 추진하고 있음
- KOPIA 센터는 필리핀 쌀 생산성 제고에 중점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종자의 특성상 종자개발을 통한 농가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KOPIA 센터의 인력은 소장 1인과 5-8명의 인턴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장 임기가 1년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

○ KOPIA와 연계하여 PHILRICE측과 공동연구 추진 목적 및 현재까지의 성과

- 필리핀 쌀산업의 최종목적은 100% 자급을 이루는 것이고, 농업부와 연계하여 최대한 2013년까지 자급률 100%를 달성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KOPIA 센터의 지원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인당 소비량이 약 120kg까지 증가, 인구증가 등의 문제로 자급률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한국 종자(자포니카)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현재 KOPIA의 지원으로 병충해 저항성 강화할 수 있는 품종을 개량하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할 계획
- 또한 농기계 및 새로운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양기관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작년부터 새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가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데 ha당 7-8톤의 조곡 수확을 달성. 직파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기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필리핀 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판단
- 한국과의 협력으로 고품질이 쌀 생산 가능, 수확량 증가, 직파를 통해 손쉬운 미곡 재배 가능.

- KOPIA와 공동연구 계획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가보급을 통한 성과관리 계획, 보급체계 현황
 - 열에 강한 품종에 대한 연구가 필리핀 연구자를 농진청에 약 1년간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협력 및 공동연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주로 품종개량에 중점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병충해, 열, 홍수 등에 저항할 수 있는 품종 개발로 현지 적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
 - 더불어 직파기술에 대한 전수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품종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도 추진을 지속할 계획으로 농기계를 현지에 맞게 개조하는 연구도 추진 계획
 - 한국 품종은 70%의 도정율이 가능하고 품질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어 현지에 상업화하는 방안이 계획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들의 수확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직파 기술을 전수하고자 하지만 현지 생산자들에게 보급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나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고수하고자하는 농민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
 - KOPIA와의 협력사업은 3년간 지속될 예정이며, '13년부터 새로운 쌀 연구주제를 설정할 예정. 이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직파의 현지화(localization), 수확의 극대화와 함께 영양소가 풍부하도록 작물 관리 연구, 정밀농업 등이 향후 협력분야로 파악
 -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기술의 현지화를 추구하고자 하며, 시험적으로 최대 수확량을 추정하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하고 있음.

나. 필리핀 카라바오(PCC) 센터

- ☐ 일시 및 장소: 8월 30일, 08-11:00, 팡가시난 카라바오 센터
- ☐ 참석자: Susan Guzman 농업부 사무관, Liza Battad 센터 운영국장, Eric Palacpac 박사 등 관계자

○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한국측 지원사업 현황

- PCC의 역할은 우량 물소(Carabao) 종자개량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특히 인공수정, 난자이식(embryo transfer)등을 통한 종자개량이 주요 연구 분야

- 대부분(99%) 수입에 의존하는 유제품 생산을 위한 우유생산과 가공기술 개발, 역량강화 사업 (훈련프로그램 제공), 소농 밀집지역의 우유생산 조절 및 유통과정에서 축산농가와 소비시장의 연결망 구축 등이 주요 역할
- KOICA측과의 협력사업은 인공수정과 난자제공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유전자 정보축적 및 활용분야, 기자재, 축사건축, 전문가파견, 초청 연수를 통한 PCC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주요 분야
- 정부 중기전략의 축산분야 발전전략에 따라 카라바오 개량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큼. 기초 장비나 기술은 과거 JICA를 통해 축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계성이 고려되었으나 필리핀측의 장기전략은 우량 물소를 이태리 및 미국 등에서 수입하여 우량종자 개량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원은 이를 위한 장비 및 기술전수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함.

○ PCC 자체적인 사후관리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

- 지원 장비의 고장 및 기타 문제 발생시 필리핀 현지 기자재 공급자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나, 소요되는 시간이 이해할 수 없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사업 완료전 우리측 시행기관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 사후관리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예산 책정 등의 행정절차를 걸쳐 향후 관리하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측에서의 사후관리방안이 제안되고 서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판단
- 향후 교육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인적 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어 추진 방향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한국과 연계된 교육훈련도 제안
- 향후 발전방향은 인적개발, 특히 석·박사를 양성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우선과제로 판단하고 있고, 장비 및 기타 장치들은 KOICA 등의 공여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계획을 수립
- 향후 난자이식과 관련된 지식의 공유가 필요하고,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축산농가에 전수되어 적용되기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음.

다. 평가시난 미곡종합처리장(RPC)

□ 일시: 8월 30일, 14-16:00

□ 참석자: Crispulo Bautista 소장

○ RPC와 관련된 추진과정 및 운영 현황

- '09년 11월에 시작하여 '11년 9월에 완료된 사업(실제 가동 '12년 4월)으로 도정을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RPC에서 생산된 쌀은 유통이나 기타 관련사항 때문에 판매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 현재 마닐라 시장 공략을 위해 National agriculture business corporation이 판매망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 기대가 큼
- 평가시난 내부는 쌀 생산이 수요에 비해 많기 때문에 60%의 쌀을 외부로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망 확보 문제로 인해 RPC의 가동율이 낮은 어려움이 발생
- '11년 완료 되었지만, 계약서 상 실험장비, 운반 차량, 지게차 등의 기자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운반차량은 생산지에서의 수확된 쌀의 안전한 공급 및 유통 관련 업무에 중요한 기자재로 실질적인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음
- 현재는 소규모 쌀 재배 농가 조합에서 직접 쌀을 운반하고 있으며, 운반차량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한 생산물의 손실도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소외계층(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RPC 사용 농가는 평균 17페소/kg, 수확시기에는 12페소/kg을 부과하지만 이전에는 중간상인들이 가격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RPC가 구축된 후 사용비가 안정적임
- 우기에는 소규모 농가들에게 건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협력사업의 목적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까지의 운영은 적자(약 90만 페소/월)를 보고 있으나, 농업부에서 2천만 페소를 운영지원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어 운영은 큰 문제가 없음
- 도정할 수 있는 쌀은 지역내 풍부하지만 도정 후 판매처를 찾지못해 도정시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최대 문제임. 하지만 국가농산업 공사에서 판매처를 찾고 있고, 만약 해결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11년 9월 사업 완료후 추진되고 있는 사후관리 방식, 우리측과의 협의

실패 및 향후 운영 계획

- 사업 완료 후, KOICA와 사업 시행기관인 신흥강판에서 방문하여 사후 관리 방안이 협의 되었으나 가장 시급한 판매망 확보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 향후 지원 사업으로는 18만ha가 우기에 경작되지만 건기에는 6만 ha만 이 썩이 경작되어 관개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임
- 기자재의 부품들이 필리핀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인 신흥강판에 온라인으로 요청을 하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필리핀에 상주하는 공급사와 협력하는 방향을 고려해주길 요청
- 지방정부에서는 사업지구 토지 및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간접적으로 종자를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면서 RPC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요건을 충족
- 생산지구와 연계된 RPC를 구축하여야 하며, 판매처확보가 우선과제임. 유통문제도 관건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농민조합을 통해 세 종류의 벼 품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ha 당 4만 페소의 생산자금 융자를 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시간당 1~1.5톤 처리능력을 가진 소규모의 RPC를 전국적으로 20-30개 정도 보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시난 지역에도 올해 2개소, 내년에 3개소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건설할 예정임. 이들 소형 시설들에는 일본제 사다키나 중국제가 도입될 것으로 판단
- RPC 건설 후 1~1.5년 뒤에는 농민조직에 운영 및 관리권을 이양할 예정이며, 현재 대상 농민조직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라. 국제기구 및 공여국 초청 현지 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8월 31일, 09:40 - 17:00,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

□ 참석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허 장 박사, 이대섭 박사), 국무총리실 (김월중 사무관, 손송희 전문위원), KOICA (황재상 부소장, Fanao Alfrado 직원, Evger Poliy 직원), 필리핀 농업부 (Puyat 차관, Cristy Polido 국제협력과장, Charry Em 차관 비서관, Susan Guzman 프로그램 매니저), 필리핀 경제개발부 (Mevalito Sullivan 농업 자문관, Riopo Andres 농업자문관),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 (Liza Battad 국제협력국장), JICA (Kobayashi Ryutalo

소장, Sachiko Takeda 부소장, Sherilyn Aoyama 농업 전문가, Ervin Mella Jr. 농업 자문관), USAID (Gil Dy-Liacco 농업 담당자), ADB (유기희 박사), 가나안 농균학교 (이관수 교장), 필리핀 농촌공사 (Marriz Agbon 사장), CJ (박원규 지사장) 등 26명.

○ 발표 주제 및 내용

- 기관별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 추진절차, 관리 및 평가, 사례조사 결과
- 아시아개발은행, USAID, JICA, KOICA, 필리핀 농업부 등의 농업부문 개발전략과 공여기구 및 기관과의 연계 사업 현황 및 절차, 평가를 통한 환류과정에 대한 발표 및 종합 토론.

○ 주요 토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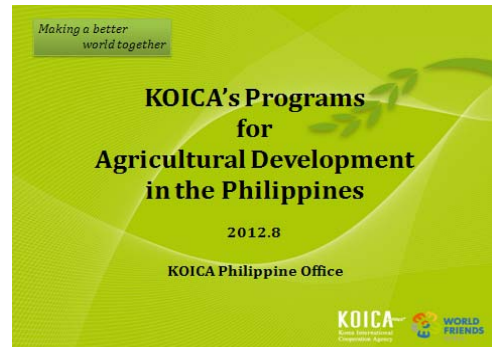
- 필리핀의 농업부문 중장기개발전략에 따라 식량안보에 대부분의 공여기관이 초점을 두고 있음. 공여기구의 지원 전략은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KOICA), 중소규모 도시를 거점으로 농촌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 시키는 전략(USAID), 관개수로 및 기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전략(ADB, KOICA, JICA)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추진절차는 대부분의 공여기관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요조사, 사전타당성조사, 승인, 사업추진 등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사업규모에 따라 필리핀 정부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비합리적인 방안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 모든 참석기관은 필리핀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있어 향후 농업부문 개발협력 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JICA 및 ADB에서 추진된 대규모 관개수로 구축 사업의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어 필리핀 관개수로부(DIA)의 적극적인 관리 및 운영 요청
- 필리핀 주재 공여기관의 역할이 일부 제한적일 수 있어 효과적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는 정례적인 농업부문 협력사업 담당자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사업추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UNDP, WB, FAO, AusAID 등의 주요 공여기구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협의체 구성기관의 규모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합의함.

<참고> 기관별 발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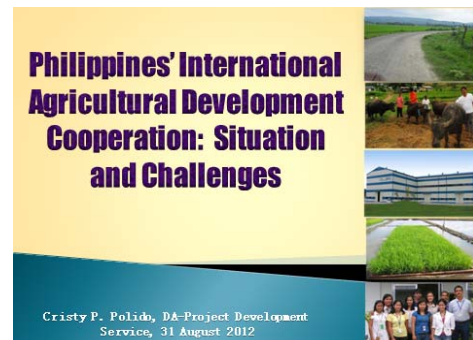
JICA 발표



KOICA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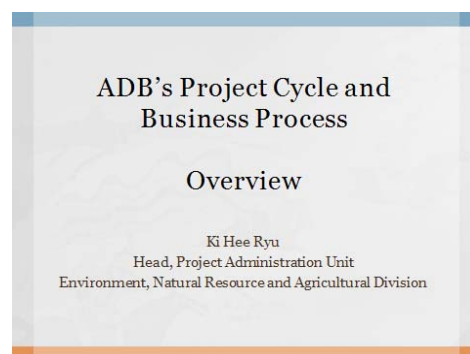
USAID 발표



필리핀 농업부 발표



KREI 발표



ADB 발표

마. 시사점

- 필리핀에 지원되는 농업부문 개발협력 사업은 필측 중장기 국가개발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파악됨
- 필측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등을 고려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고려 측면은 미흡한 부분이며, 기자재 지원 사업 등은 사후관리 방안이 필수적이나 지원된 기자재의 사용방법, 고장시 수리방안 등의 전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사업계획시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수립될 필요
- 단일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필측의 사후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필측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식 개발을 통해 지원된 사업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필요시 연계 사업 추진 고려 필요
- 국내 공여기관의 개별사업 추진시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필측의 행정절차 지원 및 세부 협력방향 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효율적 개발협력 사업 추진 필요
- 농업부문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제고 및 원조조화성 증대를 위해세미나에서 협의된 공여국 협의체 구성을 KOICA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필리핀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

4.2. 인도네시아

1) 핵심 요지

인도네시아 농림업부문에 지원된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은 인도네시아 중장기국가개발전략의 목표인 식량안보 강화, 산림부문에의 주요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수원국의 핵심 개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성과 제고, 우리나라 지원 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과성제고를 위해 하기 측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지속가능성 및 성과제고)** 농업부문의 개발협력 사업의 최상위 목표는 농가 소득증대로 이를 위한 농촌종합개발방식의 사업추진을 통해 농산물생산 및 농촌개발에 중점 지원필요. 또한 산림부문 개발협력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 예산을 포함한 사후관리 방안 구축, 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리측 정부기관및 수원국 관계부처별 역할분담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성과 제고 필요
- **(효과성 제고)** 우리측 인니주재 유관기관의 정기적 협의회를 강화하여 정보공유, 유사 사업추진 방지, 기관별 연계 사업 추진(댐 및 저수지 개발 → 농업용수 지류 개발 → 지류를 이용한 농촌개발 등)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원조 역량 강화)** 관계부처 인니 주재원 파견 및 협력기관 구축시 상주 주재원의 현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주기간 확대를 통한 인니 정부부처와의 협력 관계 강화 필요.

2) 주요 내용

가. 인도네시아 산림부

- ☐ 일시 및 장소: 9월 3일, 08:30 - 10:20, 국제협력국 회의실
- ☐ 참석자: Sri Murniningtyas 국장, Dr. Hadi Pasaribu 선임자문관
 - 인니측 산림부문 개발을 위한 우리측과의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중점 추진 과제
 - 인니 산림부측에서는 최근의 산림부문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공여국과의 협력현황, 특히 AusAID, DFID, JICA, 독일, USAID 등을 포함하여 자국의 산림협력을 계략적으로 설명
 - 인니측의 산림부문 개발협력 원칙은 상호이익(Mutual benefit)으로 현재

54개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2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음

- 한국과는 '06년 50만ha의 조림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약 20만 ha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계획 중이며, 바이오연료 조림, 목재 펠릿 생산 등의 사업을 추진이 중점협력 분야임
-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중장기 협력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감축, 벌채 관리강화 및 식목 증대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공동협력 사업 확대임.

○ 인니의 전반적인 산림부문 개발전략 및 정책과 핵심분야 추진 정책

- 인니의 산림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가 주요 골자이며, 특히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하는 전략이 세부 추진 전략으로 수립되었음. 세부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11월 28 식목일 지정)
- 인니는 43백만 ha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림지역에는 토착민들도 거주하고 있어 산림 개발은 산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함
- 산림지역의 Peat(유해가스 방출 황폐지)를 개발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전략이 핵심중 하나이나, 기간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임. 예를 들어 리오(Rio) 지역 1.4만ha의 Peat에 10억 그루의 목재를 심으면 1만ha 수준을 개발하는 것임.

○ 전략수립 및 사업추진시 공여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니측 주요 전략과 연계하여 실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 인니측은 산림부문 개발협력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 참여의 필요성 설명
- 산림부문은 성과도출을 위해 타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시로 공여국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통은 필수적이라 설명
- 한국이 지원한 룬핀지역 양묘장은 인니의 정책적 우선분야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매년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묘목을 양묘장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룬핀 양묘장 사업을 계기로 인니 정부는 전국에 양묘장을 신설

(‘11년에 24개, ‘12년에는 23개 목표 등)하고, 현대식 양묘장의 모델로 활용하여 신설 양묘장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소로 활용할 예정임

- 룬핀 양묘장을 인니 산림부 장관이 방문하고, 양묘장의 의미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였으며, 인니 정부에서도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12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 향후 산림부문 개발에 있어 한국측과의 협력 강화와 중장기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제언

- 한국과의 산림부문 개발협력은 인니주재 대사관의 임무관을 통하여 대부분 협의하는 동시에 한-인니 정부간 정기적인 양자협의체(한-인니 산림 포럼)를 통하여 ODA를 포함 산림분야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있음

※2009년부터 매년 한-인니 산림포럼, 1979년부터 격년으로 산림분야 정책 협의회 개최, 산림청장-산림부장관 수석대표

- 한국 ODA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인니 정부의 새로운 규정 등에 부합하는 사업이 우선 협의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

※ 영국 DFID의 경우 불법 벌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지원

- 국가 개발전략과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 지원이 우선은 아니며, 특히 팜오일 산업과 관련하여 과거 국유지에 팜 트리(Palm tree) 벌채허가를 산림 황폐화 문제로 현재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00년 마련된 기준지표를 숙지할 필요

- 목재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유럽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원목을 인도를 통해 중국에서 인증한뒤 유럽으로 수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 향후 자체적인 국제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수 있음.

나. 한국대사관 이미라 임무관 면담 (9월 3일, 12:00 - 13:00 회의실)

□ 일시 및 장소: 9월 3일, 12:00 - 13:00, 국제협력국 회의실

□ 참석자: 이미라 임무관

- 산림부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인니주재 한국유관기관과의 공조 방안 및 추진 전략

- 인니 주재 유관기관은 KOICA,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대사관, 개발협력사업 파견 전문가 및 PM, EDCF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부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ODA 관련된 현안들을 공유하고 있음
- 공관 주관으로 ODA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는 아니고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함
- 산림분야에서는 인니주재 공여국들의 협의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1월 세계은행 주관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협력에 대하여 정보 공유 및 논의가 진행됨

○ 현지 실정에 맞는 향후 추진방안을 포함한 제언요청

- ODA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으로는,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림핀 양묘장 사업의 경우 산림청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양호하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 판단됨. 그러나 산림청과 인니 정부의 예산 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가 존재함
- KOICA에서도 사후관리 예산을 사업추진시 사전에 확보해 두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전문가파견 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함
- 그 밖의 제안사항으로는 공관의 주재관들과 정보공유 활성화 및 주재관들이 보유한 인니측 네트워크를 보다 활발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연수과정 개설, 초청대상 선정 등에 있어서도 주재관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반영하여 기회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개발협력총괄기관(BAPPENAS)

☐ 일시 및 장소: 9월 3일, 14:00 - 15:30, 회의실

☐ 참석자: Nono Rusono 농업국장, Dini Maghfirra 과장

○ 인니 농업부문 개발협력 사업추진 계획 및 절차와 한국측과의 농업부문 협력현황

- 인니측은 우리측 국별협력전략(CPS)가 확정되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영문 CPS가 공유되길 희망함
- 과거 한국측 농업부문 개발협력은 중점지원전략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CPS를 통하여 한국 ODA의 중점분야가 명확해지기를 희망하며, CPS가 양국간 협의하에 도출됨에 따라 한-인니 협력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의

중요성 강조

- 한국은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보나, 이 분야에서 한-인니 협력 사업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한국 정부와 '11년 경제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인니 기재부장관-한국 지경부장관 서명)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없으며, 협력의 주관부처 (cooperation umbrella)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판단
- 인니측의 농업부문 우선순위는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임
 - ※식량안보에 대한 인니측 해석에 대하여 우리측이 문의한 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서 자급률 달성과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접근
- 식량생산기반 등의 구축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측면에서 인니는 약 10%의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로 많은 부분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있음

○ 개발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공여국간 협의체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이를 통한 사업 추진 경험

- 농업분야에서 정기적인 ODA 공여국 협의체는 없으나, 모니터링과 평가, 사업 발굴 등을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은 공감
- 한국과 진행중인 ODA 사업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 판단하며, 사업의 발굴시 한국측으로부터 제안서를 수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니측과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KOICA가 인니 농업부와 직접 협의하나 BAPPENAS 농촌분야 국장과 협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Bluebook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유상차관이 아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무상차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농업국장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제언으로는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지구의 지방정부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지방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관계자의 초청연수도 적극 추진할 필요

라. 인니 주재 KOICA

□ 일시 및 장소: 9월 3일, 16:30 - 18:30, KOICA 소장실

□ 참석자: 최성호 소장, 박종민 부소장

○ 대인니 한국 농림수산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 및 전략, 절차 및 관리 방안

- 농업부문의 경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CPS를 토대로 지원계획. 하지만 인니의 경우 농업부문이 중점협력 분야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농업부문과 기타사업과의 연계를 검토 예정
- 산림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이 나라의 우선순위와 우리나라 비교우위에 부합하는 사업인 점은 긍정적이나, 사업발굴이 우리나라 산림청과 인니 산림부 등 부처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효과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바이오메스사업발굴의 경우 경제성 평가 등이 미흡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고,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의 경우 책임자가 1년만에 교체되고 파견 인력이 퇴임예정 또는 퇴임 인사 위주로 파견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
- 양국간 산림협력의 경우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추진전략 구축이 필요
- 립핀 양묘장 사업의 경우 KOICA와 산림청이 사업 발굴에서부터 사업 시행, 사후활용까지 협력한 좋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다만 립핀 양묘장의 사후관리가 예산부족 등에 기인하여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운영 대책 마련 필요
- 산림 분야의 경우 인니 산림부와 산림청의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로 인해 KOICA가 산림부를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산림청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산림 외 인니와의 농업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곡물가격 등을 고려해볼 때 수확후 가공보다는 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

○ 원조 조화성 제고를 위한 타부처 및 KOICA의 협력방안 및 계획

- 타 부처와의 협력관련 제안으로, 관련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타부처의 해외진출의 필요성을 인정해주는 것은 필요하나, ODA 사업으로서 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인니 현지의 개발협력은 대사관의 조정역할 기능을 강화하여 인니정부와의 협의채널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공관장의 ODA에 관한 권한 강화가 필요
- 타 부처와의 협력에 있어서는 현지에서 주재관 등과 함께 사업발굴, 연

수생 추천 등에 있어 협의를 추진하나, 분야별 특히 인니의 경우 산림 협력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효과적

○ 중장기 추진 방향 및 향후 주요 협력 분야

- 현재 인니주재 KOICA는 향후 '15년까지 추진하고자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록 및 사업 내용을 선정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로 향후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장기적인 추진 방향은 우리나라 산림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인니 현지의 산림부문 협력사업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특히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함.
-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식량안보 강화에 초점을 두고자하며, 이를 위해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

마. 립핀 양묘센터

□ 일시 및 장소: 9월 4일, 10:00 - 12:30, 센터 회의실

□ 참석자: Bennie Subandi, KOICA 박종민 부소장, 조준규 사무관

○ 설립현황 및 운영 전략

- 한-인니 산림협력 센터 조준규 사무관은 양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대식 인니 최초의 교육, 연구, 종자 보급 기능을 갖춘 종합 시설로서 의의 등의 설명
- 센터는 양국간 산림협력의 거점이 되고 있어 실질적,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현안으로서는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양국간 MOU체결을 근거로 '11-'12년 2년간 16만불을 지원하고 있으나 '13년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며, 인니측의 예산확보도 확정되지 못한 문제가 존재
- 립핀 센터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약 1천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KOICA와의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 가능성

- KOICA 박종민 부소장은,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KOICA 차원에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KOICA 규정 및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단기

간 결정되기는 어려움. 또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니 정부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해나가도록 독려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고려요인이라 판단

- 대표단은 강의동, 숙박동, 연구실, 실험실 등의 센터 세부시설을 견학하였으며, 대부분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교육, 훈련, 연구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가능성 확인.

바. 보고르 전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장

☐ 일시 및 장소: 9월 4일, 16:00 - 18:30, 회의실

☐ 참석자: 보고르 지방 정부 관계자 및 KOICA 박종민 부소장

- 현지 시범농장 센터장 및 보고르 농업지부(Bogor Regency) 인사들이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성과와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 교육, 훈련 기능이 '10년, '11년에 잠시 중단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에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전담하도록 다른 기관을 설치하면서 보고르 시범농장에 교육,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나, 현재는 다시 예산이 배정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KOICA의 지속적인 상주 전문가 파견을 통해 작물재배기술 및 농기계 유지, 보수, 농민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현지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해옴.
- 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예산 부족, 한국산 농기계 유지, 보수의 어려움, 생산량감소 및 작물의 품질 저하, 수확 후 가공 문제, 마케팅 (가격 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이 선결과제로 판단
- 현재는 시범농장에 방울토마토, 멜론 등이 재배되고 있고, 겨울작물 재배 기반 조성 등이 주요 업무이며, 밭작물 재배를 위하여 고랑 및 관개수로 정비를 계획

사. 인도네시아 농업부 국제협력국

☐ 일시 및 장소: 9월 5일, 09:30 - 11:00, 회의실

☐ 참석자: Yusral Tahir 국제협력국장 및 관계자

○ 농업부문 개발협력 추진현황 및 협의 절차

- 농업부문에서는 한국측과 활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깔리만

탄 농촌개발사업과 '02년 추진된 보고르 전작물 사업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인니 재정부에서 보고르 전작물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자산 조사를 실시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니 측의 평가 의견이 제시될 예정으로 이메일 등으로 한국측에 송부할 계획
- 인니측의 협력 우선분야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대응으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적 비교우위 분야에 대하여 협력확대를 희망
- 농업부문 협력 관련, 생산과 가공단계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판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원 사업의 최종 목표인 농민들의 소득창출과 국민들의 식량가격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움. 따라서 농산물의 가치사슬에서 생산 및 가공 후 과정에 대한 고려가 ODA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농민들과 시장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인니측은 정부 또는 조합에 의하여 필요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답변함

- 인니측은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면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농촌개발운동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인니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합적 지원(생산-가공-판매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 표명(JICA, 태국의 지원사례 소개)
- 한국의 ODA 사업 추진에 있어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농어촌공사의 경우 유전용단이 매주 프로젝트 진행현황보고 및 협의를 하고, KOICA 깔리만탄 농촌종합개발사업의 PM과도 수시로 협의하고 있음.
- 다만, 사업 관련해서 KOICA와 협의는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국한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음

※깔리만탄 사업 PM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 농업부와 협의는 잘 되는 편이며 기자재 변경, 현지전문가 채용 확대 등에 대한 현안을 상호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한국의 ODA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으로 인니 측은 ODA 지원사업에서 공여국 전문가 파견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20~30%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70~80%를 그 외 연수, 기자재 등으로 배분하여 실제로 인니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

※이러한 규정은 그간 기존의 무상원조 사업 행태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도출된 것이며, 현지전문가 채용은 제한이 없음

- 인니측은 ODA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모든 ODA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정부가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농림부에 추가 예산을 신청하면 검토를 통하여 추가 지원도 해준
- 사후관리와 관련, 한국 ODA에 대한 제안사항으로는 타 원조기관의 사업과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참고로 기존에 축산분야에 대한 KOICA 지원이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으나, JICA 사업 추진시 이를 포함시켜 현재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
- 인니측은 ODA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있긴 하나, 대상이 주로 대규모인 주요사업들에 국한어 소규모 사업까지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함
- 농업분야에서 주요 공여국은 무상은 독일, 네덜란드, 호주, 미국 등이며 유상은 세계은행, ADB, IDB 등임. 농업분야에서 공여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현재로는 없으나, 상호학습, 정보공유,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필요성에는 공감함
- 한국 ODA 사업추진시 제안사항으로서, 원하는 자료의 적시 제공(특히 사업비 집행 현황 등), 인니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에서 한국의 기술협력 등 특화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대표브랜드사업과 영역의 선택 등을 제안.

아. BAPPENAS 산림 및 수자원보전국

☐ 일시 및 장소: 9월 5일, 14:00 - 15:00, 회의실

☐ 참석자: Mr. Basah Hernowo 국장

○ 산림부문 개발협력 추진전략 및 향후 계획

- 산림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 400개의 산림관리단(Forestry Management Units, FMUs)이 설립 계획되었으며, 각 관리단마다 약 10만ha 정도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어서 행정의 분권화, 거버넌스의 구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
- BAPPENAS 산림 및 수자원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세가지 측

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① 인적자원 개발 : 대학 등에서 산림분야는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음.
- ② FMU 마다 약 50~70억 루피(약 7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10만 ha의 산림을 관리하고자 하나 예산확보가 필요
- ③ 합판 제조와 같은 후방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바람직함.

- 방문단은 아국 산림청에서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양묘장 건설사업 등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BAPPENAS에서 많은 협조 기대

자. 인니주재 수출입은행

☐ 일시 및 장소: 9월 6일, 11:00 - 12:30, 회의실

☐ 참석자: 이운창 소장

○ 인도네시아에서 EDCF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림수산분야 관련 사업

- 까리안 댐 사업 댐 건설에 관하여 입찰이 진행중이며, 도수로 및 정수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KOICA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댐이 건설될 경우 농업용수로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농림수산 분야와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서부 자바지역 관개사업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아니라 공공사업부와 일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EDCF에서는 농림수산분야에 국한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CPS 수립과정에서 인니의 농업개발을 중점분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인도네시아에서 개발협력기관들 사이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사 주재로 정기적 모임을 가지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반면에 타 공여국, 기관과도 모임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 정보교환에는 이르지 않고 있음
- 향후 농림수산분야의 협력사업 추진을 고려하지만 대부분 생산 또는 관개수로와 관련된 대형 사업추진이 될것으로 예상되며, 댐, 저수지 개발 등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류 건설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고려하고 있음.

차.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세계 3대 산림국가로서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과 달리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림관리 행정체계도 잘 작동하고 있어서 산림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는 중점협력국가임.
- 특히 인도네시아의 산림자원 개발에는 KORINDO와 같은 민간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현재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룬핀 양묘장 건설사업은 이 나라가 적극 추진 중인 연간 10억 본의 나무심기 사업, 임업관련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인니 정부는 동 양묘장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에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농림수산분야에 추진된 협력사업은 많지 않으나, 기존에 실시된 사업들에 대한 유지, 확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니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사업의 영향(impact)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
 - 룬핀 양묘장의 경우 산림부가 인수하여 “산림육종센터” 산하로 소속시켜 인니 정부의 예산으로 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
 - 이 경우 KOICA의 무상원조 → 산림청 자체예산에 의한 운영 → 대상국 자체예산에 의한 운영으로 바뀌면서, 아국의 협력사업 시행기관간 협력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모범사업이 될 것임
 - 보고르 지역 텐조에 시행된 밭작물농업 중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관리단이 농기계 등 시설과 장비의 지속적, 자립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보고르 지방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
- 인도네시아에서 ODA 사업은 BAPPENAS를 통하여 사업계획서가 취합되고 사업이 선정되는 중앙집중적, 일원적 방식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BAPPENAS가 잠재적 사업을 목록화한 이른바 “Blue Book”에의 등재에 역점을 기울여야 함.
 - 무상원조의 경우 등재되지 않아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부처를 통하여 인니 정부 자체의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개발전략과의 연계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도 사업 선정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별첨> 필리핀 현지 협의회 일정

- ☐ Title :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griculture and rural sector:
strategies, procedure, monitoring and evaluation
- ☐ Date and Venue : 2012. 8. 31 / Manila Peninsula Hotel, Manila
- ☐ Participants : Department of Agriculture, Asia Development Bank,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SAI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 Schedule
 - Registration : 9:40 - 10:00AM
 - Opening Ceremony : 10:00 - 10:20AM
 - Opening remarks (Dr. Lee, Dae Seob)
 - Welcoming speech (Undersecretary Puyat, DA)
 - Presentation
 - ADB's Project Cycle and Business Process
10:20 - 10:45AM (Dr. Ryu Ki Hee, ADB)
*Coffee Break
 - USAID's Partnership Growth, Cities Development Initiative
11:00 - 11:25AM (Mr. Gil Dy-Liacco, USAID)
 - JICA's Strategy of Improvement of Agriculture/Irrigation Projects in
Philippines
11:30 - 11:55AM (Mr. Kobayashi Ryutaro, JICA)
 - Luncheon : 12:00 - 1:30PM (Manila Peninsula Hotel)
 - Presentation and Plenary Discussion
 - KOICA's Program i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1:30 - 1:55PM (Mr. Hwang, Jan Sang, KOICA)
 - Korea's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 - 2:25PM (Dr. Heo Jang, KREI)
 - Philippines'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Situations and Challenges
2:30 - 2:55PM (Ms. Cristy Polido, DA)
*Coffee Break
 - 3:10 - 4:50PM (Discussants : All Participants)
 - Adjourn